

## 2011.06.27 미래정책연구실

※ 본 자료는 지난 6월 20일 농림수산물부에서 발표한 「G20차원의 세계식량안보 논의 본격화」 및 관련 언론 보도 내용을 참고하여 정리한 것임.

## □ 국제식량안보 논의 동향

## 1. G20차원의 세계식량안보 논의 배경

- 2008, 2010년 국제곡물가 상승으로 식량수입국과 개도국의 식량수급 어려움 가중
  - 일부지역에서는 폭동 발생 등 사회 불안요소로 비화되고, 세계 경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
    - ※ 세계영양결핍인구 : (2009) 1,023백만명(역사상 최고), (2010) 925백만명
    - ※ FAO식량가격지수<sup>1)</sup>는 '11.2월 236으로 최고치를 경신한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, 5월 지수는 232로서 '08년 세계식량 위기시 최고치('08.6월)였던 214에 비해 18p나 높음.
- G20 서울 정상회의('10.11월)에서 식량안보 문제를 더 깊이 있는 논의
  - FAO, OECD 등 국제기구에 “농산물 가격변동성 완화에 대한 정책대안 발굴”을 요청
- 금번 6.22~23일에 개최된 G20농업장관회의는 금년 G20정상회의 개최국인 프랑스에서 농산물을 포함한 1차산품의 가격 변동성 완화를 주요 아젠다로 설정함에 따라 개최된 회의로서, 지난 1월부터 3차례의 고위급회의를 거쳐 각료선언문과 행동계획을 조율해옴.
  - 농산물 가격 변동성 완화를 위한 각료 선언문과 행동 계획을 만들어 이를 11.3~4일 프랑스 칸느에서 개최되는 G20정상회의에 보고할 계획

1) FAO가 1990년 이후 곡물, 유지류, 육류, 낙농품, 설탕 등 55개 주요 농산물의 국제가격 동향을 모니터링하여 매월 작성·발표(2002~2004년 평균=100)

○ 참석대상: 참석대상 : 23개국(G20회원국, 초청국 3), 10개 국제기구

- G20국 : 아시아·태평양(한국, 일본, 중국, 인도네시아, 인도, 호주), 아메리카(미국, 캐나다, 멕시코, 브라질, 아르헨티나), 유럽(프랑스, 영국, 독일, 이탈리아, 터키, 러시아, EC), 중동(사우디아라비아), 아프리카(남아공)
- 초청국 : 싱가포르, 스페인, 아랍에미리트(UAE)
- 국제기구 : FAO, IFAD, IMF, OECD, UNCTAD, WFP, World Bank, WTO, IFPRI(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), UN HLT(High-Level Task Force)

## 2. G20농업장관회의의 「각료 선언문 및 행동계획」 주요 내용

## ○ 농업생산 및 생산성 향상

-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투자와 연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정치적 의지를 선언문에 포함
- 구체적 행동계획으로 국제 밀 연구 이니셔티브를 통해 밀 관련 연구를 강화하고 정보를 공유

## ○ 시장정보와 투명성

- 농산물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FAO를 중심으로 농산물시장 정보 시스템(AMIS : Agricultural Market Information System) 창설
- 조기경보시스템(EWS), 신속대응포럼(RRF)을 AMIS와 연계하여 운영

## ○ 국제 정책공조 강화

- 식량안보 문제에 대한 FAO역할 강화 및 자유로운 농산물 교역 증진을 위한 DDA협상 타결 필요성 강조
- 바이오 연료와 식량생산 및 공급과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와 식량과 경합하지 않는 바이오연료 기술개발 연구 강화

○ **취약계층에 대한 가격 변동성 영향 완화**

- 개도국이 농업을 발전시키고 위험을 회피할 수 있도록 국가역량을 강화하고, 식량안보 위험관리 수단 개발
- WFP 등 국제 공여기관을 통한 **인도적 긴급 식량비축 시스템 구축안** 강구

○ **농산물 파생상품 시장의 투명성**

- 농산물 파생상품 시장의 관리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농산물 파생상품 시장에 대한 규제와 감독강화 방안을 재무장관 채널에서 논의

□ **G20농업장관회의 논의 결과 요약**

○ 금번 회의를 통해 G20 농업장관들은 식량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식량 증산 등 다양한 조치에 합의함.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.

- **국제농산물시장정보시스템(AMIS) 창설 합의**

- 주요 농산물 가격의 급등락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계 각국 농산물의 생산량과 재고에 대한 정보를 수집·분석

- **조기경보시스템(EWS) 도입 합의**

- 곡물 생산량 증감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기상이변 상황 등을 예측

- 빈곤국 주민들의 심각한 식량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인도적인 차원의 **긴급 식량비축 시스템**도 세계식량계획(WFP) 주도로 마련

- 인도적 식량 지원은 식량 수출 제한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합의

- 그 밖에 식량 증산, 식량 시장 투명성 제고, 회원국간 정책 조율 등 행동계획의 상당부분 반영

※ 참여국들은 식량안보와 국제 식량 가격 변동 문제를 주요 이슈로 부각시킨 점에서 금번 회의의 중요성이 크며, 향후 G20 정책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

○ 하지만 G20 농업장관들은 **식량 투기세력을 강력하게 단속하자는 프랑스의 주장은 채택하지 않음.**